

편부모가정 해마다 크게는다

이혼·별거부부 급증 탓...1백만가구 넘을듯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만 자녀들과 사는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편부모 가정은 지난 66년 39만가구에 불과했으나 70년 59만가구, 80년 74만가구, 90년 89만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95년의 경우 아직 통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백만가구가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의 증가와 함께 과거에 비해 가정불화로 이혼·별거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아버지와 자식들만 사는 가정 5천가구에 대해 편부가정이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혼 46.9%가 이혼, 28.4%가 배우자 가출을 꼽아 7할 이상이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사망이 21.8%, 미혼부 1.3%, 배우자 심신장애 0.9%, 기타 0.8% 순이었다.

편모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6

6.2%)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이혼은 18.9%였다.

편부모 가정의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양쪽의 역할을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 어려움과 함께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감,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저소득 편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양육비와 학비, 생활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편부모가정에 대해 상담사업 등 지원책과 함께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가정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석 기자